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6월 후원미사는 19일, 7월 후원미사는 17일, 8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7년 4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 수입 총액 | 28,075,537 | 전월이월금 | 6,367,002 |
|-------|------------|-------|-----------|
| 지 로 | 3,514,830 | 우리은행 | 7,905,855 |
| 국민은행 | 4,784,000 | 하나은행 | 1,271,130 |
| 조흥은행 | 110,010 | 신한은행 | 1,165,130 |
| 외환은행 | 437,500 | 제일은행 | 215,080 |
| 농 협 | 1,430,000 | 기업은행 | 380,000 |
| 우 체 국 | 45,000 | 지정기탁 | 450,000 |
| | | 교구보조 | - |

지출내역

| 항목 | 지출 | 세부내역 | |
|----------|------------|------------------------------------|-----------------|
| 베네레헴어린이집 | 7,000,000 |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 |
| 베다니아의 집 | 1,500,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 |
| 벳들의 집 | 925,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 |
| 마고네공부방 | 1,000,000 | 간식비, 교육비 등 | |
| 몽골공동체 | 200,000 | 제전비 | |
| 남미공동체 | 300,000 | 제전비 | |
| 소 계 | 10,925,000 | | |
| 지원금 | 노동사목위원회 | 5,000,000 | 장기수선충당금 등 |
| 운영비 | 이주사목위원회 | 4,385,000 | 운영비 등 |
| 지정기탁금 | 지정기탁 | 450,000 | 신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
| 지출 총액 | 20,760,000 | 잔액(이월금) | 7,315,537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7. 5 / 제11호

펴낸날 2017. 5. 15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지난 4월 30일 부활제 3주일은 교회가 정한 이민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이주사목위원회 식구들은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교구장 대리이신 유경춘 주교님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필리핀 공동체와 베트남 공동체의 성가대가 성가를 맡아주었고 1000여명이 넘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례는 한국어로 진행되었지만 성가, 화답송, 대영광송을 비롯해 다른 모든 전례는 각국의 언어로 봉헌되었습니다. 주교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각국의 언어를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경건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함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고 흥미롭고 서로를 살찌우는지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함들을 품고서 하나의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사를 봉헌하고 각국 공동체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성당마당에서 나누며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흥겨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이 모두 다 소진될 정도로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들이 만연한 요즘, 이날의 행사는 우리가 서로 다름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축복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모님의 계절 5월,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가정에 성모님과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누구나 '하느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아 길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그 점은 현재 자기 고향에서 사는 사람에게든 아니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주민으로서 여기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런 사실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잘 도착하는 것이 우리 믿음여정의 목표인 것입니다."(유경춘 주교의 강론 중)

천주교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이민의 날 맞이 '제9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 소식*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가 올해로 9회를 맞이하여 4월 30일(일) 오후 1시 30분에 명동대 성당과 성당마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1부 축복미사(유경춘 주교님 주례)로 시작하여 제2부 국가별 음식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이주민들은 함께 미사 드리고, 자국의 음식과 타국의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이들이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미공동체 소식*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 새벽까지 콜롬비아 모코아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23명이 숨지고 아직 300여 명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3,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국가공동체인 남미공동체는 제9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에서 남미 이주민이 손수 만든 앞치마와 손수건 등을 만들어 판매하여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베트남공동체 성삼일과 부활미사 소식*



성목요일 주님만찬미사와 발씻김 예식



성금요일 주님수난예식



부활성아미사

베트남공동체는 성삼일 예식과 부활성아미사를 공동체 공소에서 드렸습니다.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베트남 신자수가 평균 350여 명인데 부활대축일 미사에는 5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베트남에서는 대축일 미사에 사제가 노란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노란색은 황금을 뜻하는 귀한 색이라고 생각하여, 노란 금글 나무를 집이나 거리에 장식하여 다산과 풍요를 빈다고 합니다.

문화알림

ABOUT Indonesia 인도네시아*



- 수도 / 자카르타
- 종교 / 이슬람교(88%), 개신교(5%), 기타종교(로마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 기후 / 열대성기후
- 인구 / 약 25,831만명(세계 4위)
- 기념일
 - 1월 신년(1일), 설날(28일)
 - 3월 발리 힌두력 새해(28일)¹⁾
 - 4월 성 금요일(14일), 무하마드승천일(24일)
 - 5월 노동절(1일), 석가탄신일(11일), 예수승천일(25일)
 - 6월 건국기념일(1일), 라마단축제(25~26일)²⁾
 - 8월 독립기념일(17일)³⁾
 - 9월 희생제(1일)⁴⁾, 이슬람 설(21일)
 - 12월 무하마드탄생일(1일), 크리스마스(25일)

1) 발리 힌두력 새해(3월 28일)

공통된 달력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힌두교는 힌두력을, 이슬람교는 이슬람력을 사용한다. 힌두력이란 힌두 우주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힌두교의 태음력을 말한다. 네베 데이(Nyepi Day)라고도 부르고 외국인들은 고요한 날(Silent Day)이라고도 부른다. 네베 데이는 어느 누구도 집밖으로 나다닐 수 없으며, 부엌에 불을 쬐 수도 없어 금식을 해야 한다. 밤에는 불도 켤 수 없고 오로지 기도만 올리는 날인 것이다. 아침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 진행된다. 네베 데이 전 날에는 동네마다 오고오(힌두교 악마를 상징하는 인형)라는 이름의 커다란 인형을 만들어 태우는 의식을 진행한다.

2) 라마단축제(6월 25~26일)

이슬람교는 1년에 한번 30일간의 단식을 하는데 그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한다.(2017년 5월 27일~6월 25일)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이러한 라마단은 자기 절제와 금식을 통해 절약된 곡식이나 비용은 가난한 주변 사람들과 나눠 고통을 함께하고, 정신적으로 맑게 하여 회교도끼리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깊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여행자·병자·임신부 등은 면제되는 대신, 후에 별도 금식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 성관계, 상호 욕설/모욕하는 말도 금지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무렵에 열리는 성대한 축제를 '르바란'이라 하며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공휴일 이틀간은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나라의 송편이나 떡국처럼 특사인 꼬뚜뽕(Ketupat)을 만들어 나눠먹는다.

3) 독립기념일(8월 17일)

네덜란드에 3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한 후 3년간 일본의 식민지를 거쳐 1945년 8월 17일에 독립했다. 오랜 기간 동안 타국의 속국으로 살았던 만큼 독립기념일은 자랑스럽고 중요한 날로 곳곳에서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며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국경일이다.

4) 희생제(9월 1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라마단 종료 후 열리는 르바란과 더불어 무슬림들의 양대 축제이다. 이 날은 공식적으로 양이나 염소, 소 때론 낙타를 잡는데 광장이나 집에서 잡는다. 가족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눔'이다. 희생된 고기의 1/3은 가족을 산 사람 혹은 그 가족이 갖고, 1/3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1/3은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하지만 주변에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으면 모든 고기를 그들에게 준다. 나눔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종교 특징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 즉 이슬람 신자를 의미하는 무슬림(Muslim)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교 외에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및 유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를 가질 의무가 있지만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도 있어서 6대 종교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슬람 문화권이면서도 타 종교에 대한 배려도 있어 모든 종교적 특정일은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타 종교에 대한 배척보다는 서로 인정하고 융화하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문화양식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 내 인도네시아 이주민 통계 *출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인 총 597,783명 중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36,943명(남자 35,415명, 여자 1,528명)으로 6.2%를 차지하며,
국민의 배우자 체류 외국인 총 152,374명 중
인도네시아 출신은 545명(남자 66명, 여자 479명)으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